

한세광 교수, 빛을 이용한 암 치료기술 개발



【포항=뉴시스】강진구 기자 =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(45세) 교수와 박사과정 정호상 씨는 하버드 의과대학 웰만광의약센터(Wellman Center for Photomedicines)와 공동으로 나노미터 크기의 그래핀을 히알루론산과 결합해 암이 유발된 동물모델의 피부를 통해 투입한 다음 근적외선을 쬐이는 광열(光熱)효과를 통해 암 조직을 괴사시키는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. 사진은 한세광 교수. 2014.01.03. (사진=포스텍 제공)

photo@newsis.com

기사등록 일시 : [2014-01-03 13:24:54]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기사/사진 구매 : 콘텐츠 판매